



양계 안 테 나

종계 DB구축 작업 추진 종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양계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불황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안정적인 양계업 경영을 위해 수급조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원종계 및 종계 도태 사업 추진 등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져왔고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었으며, 근본적으로 실제 사육되고 있는 원종계와 종계수수를 파악하여 이를 자료화하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금년부터 본회에서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종계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화하여 수급조절 및 경기전망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하였다.

종계 사육과정에서 발생되는 관련 통계자료는 양계산업의 근간이라 여길 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종계 병아리의 월별 입식동향 파악 정도에 국한되어 왔으며, 종계 입식후 후속적인 종계 관리조치가 따르지 못해 강제환우 및 노계도태 등의 정보부재로 소비와 생산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경기전망 예측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게 사실이다.

결국 전 종계를 대상으로 입식부터 노계도태까지의 변화요인과 이동조치 및 생산동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자료화하여 안정적인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농림부의 협조하에 이미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상태이고, 기초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전담인력 확보 및 활용 방안 등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농장별 조사주기 및 조사방법 등이 확정이 되어 조사대상 농장에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이 곧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정확한 종계사육수수 파악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하고, 정확한

D/B구축에 따른 잠재력 산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향후 경기전망을 예측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종계 생산성 동향에 따른 질병발생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종계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시행 중 조사요원의 요청사항에 불응하거나 허위내용 전달 등 해당농가의 협조가 따라주지 않거나 원종계 농장의 종계분양 현황 정확성 여부 등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따를 수 있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각 종계장에서는 이 사업이 전국 종계장 온라인 구축망이 필요한 시점에 앞선 기초단계로 인식하고 각 종계장 경영주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요청되고 있다.(황일수 자조금사업팀장)

양계업 위기가 기회 웅비(雄飛)해야 살아 남는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우리는 더러 듣게 되고 이따끔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얘기들은 어찌보면 요사이 우리 양계업계(협회)가 처한 현실을 보고 냉정한 충고 내지는 격려성 관심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어찌됐건간에 축산업계의 여러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는바 국내 양계산업은 타 축종보다 모든 분야에서 앞서나가다가 뒤로 쳐진 양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양계농가는 물론 양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인사들 모두가 현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반성해야 하며 앞으로는 타축종과의 대열에서 더 이상은 뒤쳐지는 인상을 주거나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태까지의 잘잘못을 남탓으로 하지 말고 나의 잘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와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본다.

진정 우리 양계업계가 발전하고 재옹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환골탈태(換骨奪胎)되어 조금은 양보하는 마음의 여유와 나의 주장 보다는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야말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회로의 저력이 되리라 확신한다.

그래야만 양계업계가 현재 갖고 있는 온갖 갈등관계 등을 극복하게 됨은 물론 밝은 미래의 비전까지 멀리 내다보게 되는 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어져 우리 양계업계가 재옹비되는 기반이 마련되리라 확신해 본다.(조종수 업무지원팀장)

축산업 등록제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양계업 만들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제는 친환경직불제 등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친환경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분뇨처리경로 확인, 가축사육밀도 준수, 환경교육이수 등의 확인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생산 이력제 도입을 위해 축산업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축산업에 대해 등록된 농가위주로 각종 정책사업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미등록농가에 대해 농업종합자금, 가축공제, 산지 축산물생산유통지원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지원대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제외시켜 나갈 것이다.

축산업 등록제 시행은 현재 양계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계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쓰레기 만두파동 이후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의 가격과 맛, 영양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품질과 위생상태, 그리고 신선도를 높게 평가한다.

이것은 비단 가공식품뿐만이 아니라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계산물도 예외일 수 없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닭고기”와 “안전한 계란”을 저가에 공급해 주길 원한다.

이같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농장관리가 필요하며, 대량생산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소량생산이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다. 이는 곧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축산업 등록제 시행과 관련하여 양계농가는 2005. 12. 2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축산업등록제는 친환경직불제 등 선진국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허가 또는 무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미등록 농가는 모든 정책의 지원에서 제외된다.

등록제에 대한 양계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등록제 시행방법에 있어 규제 중심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밀집사육에서 친환경사육으로 변화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대책과 교육사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정부는 친환경축산으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하여 국제경쟁력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이보균 경영지도팀장) **양계**